

한국투자증권, WM·연금·IB 전 사업 호조... '1조 클럽' 눈앞

1분기 영업익 9598억... 85% ↑
김성환 사장, 균형성장 구조 성과 입증
올해 IMA 기반 기업금융 역량 강화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 (원형사진)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의 세 번째 임기가 순조롭게 출발했다. 연임 확정 이후 처음 받아든 성적표에서 한국투자증권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1조 클럽'에 한층 가까워졌다. 자산관리(WM), 연금, 기업금융(IB) 등 전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한 데다 국내 증시 활황이 더해지면서 실적과 주가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14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599억원, 당기순이익이 784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0%, 75.1%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1조원에 육박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 컨센서스였던 영업이익 8220억원과 순이익 6445억원을 각각 약 16.8%, 21.7% 웃돌았다. 지난해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2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 김성환 사장 세번째 임기... 첫 성적표 '합격점'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3연임이 확정된 김 사장은 실적으로 경영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김 사장은 2022년 대표이사에 오른 이후 자산관리와 연금 사업 확대,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 글로벌 사업 확장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실적의 배경에는 특정 사업 부문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수익 구

조가 자리하고 있다. 1분기 기준 수익 비중은 위탁매매(BK) 33.3%, 자산관리(WM) 9.0%, 기업금융(IB) 18.6%, 운용(Trading) 39.1%로 집계됐다. 각 사업 부문이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내며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위탁매매 부문은 국내 증시 호조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관련 수익이 직전 분기 대비 55% 증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들

어 MTS '한국투자'에 50건 이상의 기능 개편을 단행하고, JP모건과 국태해통증권 등 글로벌 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해 독립 리서치 서비스를 확대했다.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채권, 발행어음, 수익증권 판매 호조로 판매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71.6% 급증했다. 개인 고객 금융상품 잔고는 지난해 말 85조 1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94조 5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매달 평균 3조 1000억원의 개인 고객 자금이 유입된 셈이다.

기업금융 부문은 기업공개(IPO)와 주식자본시장(ECM) 부문에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운용 및 세일즈앤트레이딩 부문 역시 금리, 환율, 주식, 채권 등 시장 변수에 대응한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호실적에 기여했다.

기업금융 부문에서는 조직 정비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약 2년간 공석이었던 IB그룹장 자리에 김광옥을 선임했다. 김 부사장은 카카오뱅크 상장을 총괄한 IB 전문가로, IPO·인수금융·인수합병(M&A) 부문간 시너지를 확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성

환 사장이 직접 겸임하던 IB 총괄 체제를 전담 체제로 전환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 전략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IMA 본격화... '아시아 No.1' 향한 성장 전략 가속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IMA는 고객 자금을 기업금융과 혁신기업 투자로 연결하는 초대형 투자은행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리테일 상품 공급 역량과 IB 딜 소싱 역량이 결합된 한국투자증권의 사업 모델이 본격적으로 힘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김 사장은 글로벌 사업 확대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전 세계의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자유롭게 다루고 글로벌 자금이 KIS 플랫폼을 통해 흐르게 해야 한다"며 "AI는 업의 경계를 부수고 새로운 수익의 영토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KB증권, 코스피 목표지수 대폭 상향... "1만 포인트 넘을 것"

주요기업 영업이익 개선 전망 반영
반도체·로봇·전력 등 주도주 제시
"단기 버블붕괴 가능성은 제한적"



KB증권 본사.

KB증권이 14일 'KB 전략' 보고서를 통해 2026년 코스피 목표 지수를 7500포인트에서 1만 500포인트로 40% 상향 조정했다.

KB증권은 2026년 현재 코스피 시장은 역사상 가장 강했던 '3저 호황'(1986~1989년)보다 더 빠르고 강하다고 판단했다. 그 중심에는 'AI 투자'에서 비롯된 실적 추정치 상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스피 실적 전망치 상향 속도가 지수 상승 속도를 크게 앞선 가운데, 밸류에이션 부담도 동시에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KB증권은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919조원으로 추정해 전세계 증시에서 압도적인 실적 개선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은 2025년 91조원에서 2026년 630조원, 2027년 906조원으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919조원으로 추정했고, 2027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1241조원으로, 1000조원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휴머노이드 로봇은 AI 인프라 시대에 희소 전략 자산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 AI 2.0인 에이전틱 AI로 진입한 AI 시장은 클라우드 중심의 서버 AI를 넘어, 온디바이스 AI로 진화되고, 2028년부터는 AI 3.0 시대인 피지컬 AI로 확장되며 훨씬 더 폭 넓은 성장 경로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는 지연 없는 실시간 추론 중요성 부각으로 메모리 반도체 용량 확대와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 확보는 필수적으로 판단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붕괴를 위해서는 ▲경기 사이클 붕괴 ▲금리 급등 등의 명확한 시그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시그널은 단기간(약 3~6개월) 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신한자산운용 AI반도체TOP2플러스 두달만에 순자산 2조

신한자산운용은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 2조원을 넘었다고 14일 밝혔다.

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지난 3월 17일 110억원 규모로 상장한 지 50일 만인 지난 4월 순자산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13일 2조 903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ETF는 국내 반도체 대형주와 핵심 가치사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에프엔가이드(FnGuide) AI반도체 TOP2 플러스 지수를 기초지수로 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47% 이상 담고 있고 나머지는 SK스퀘어, 삼성전기, LG이노텍, 이수페타시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하은 기자

KB자산운용 채권혼합 ETF 자산 급증

KB자산운용은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ETF(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이 2조원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ETF의 순자산은 지난 13일 종가 기준 2조 12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월 26일 상장 이후 51영업일만으로, 국내 채권혼합형 ETF 가운데 최단기간 2조원 돌파다.

국내 채권혼합형 ETF 중 순자산 1위로, 최근 1개월 수익률은 25.81%(에프엔가이드 기준)에 달한다.

이 ETF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주도하는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5% 비중으로 편입하고, 나머지 50%는 단기 국고채 등 우량 채권에 투자한다. /신하은 기자

美 반도체 주식 연일 폭등... 닷컴버블 이후 최고 과열국면

SOX 2개월새 64% ↑... RSI 85.5

미국 반도체 주식이 닷컴버블 이후 최고 과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는 지난 3월 말 이후 64% 폭등했다. 같은 기간 17% 오른 S&P 500 지수를 크게 앞질렀다.

특히 마이크론(138%)과 AMD(129%)는 100% 이상 뛰었다. 인텔(193%)은 200% 가까이 치솟았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자본 지출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 올리면서 엔비디아가 중심으로 형성됐던 투자 열기가 업종 전반으로 확산한 결과다.

모건스탠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스티브 에드워즈 선임 투자전략가는 "반도체와 기술적 스토리가 동시에 강하게 맞물려 열정적인 투자자 기반이 형성됐고 이것이 모멘텀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낙관적인 투자자들조차 밸류가치를 것에 대비하고 있다.

반도체 주식의 움직임은 1999~2000

년 닷컴버블과 비교되기도 한다.

자산운용사 체이스 인베스트먼트 카운슬의 피터 터즈 대표는 "어떤 자산에서든 포물선형 급등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지금 시장이 너무 뜸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물어봐야 한다"며 퀵컴 주식 일부를 매도했다고 전했다.

실제 경고 신호를 내는 기술적 지표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SOX의 주간 상대강도지수(RSI·자산의 과매수·과매도 수준을 나타내는 기술적 지표)는 85.5를 기록했다. 2000년 3월 닷컴버블 정점 이후 가장 높은 과매수 수준에 도달했다.

/신하은 기자